

- 쿄카리(가류 쿄야x가류 키리히토) 기반
 - 사망 소재 주의
 - 수위 요소 없음
 - 적폐날조어쩌구 주의
-

상실喪失

1. 명사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해어지게 됨.
2. 명사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가류 쿄야가 죽었다.

사인(死因)은 흉부의 총상이었다. 그가 언젠가 기소한 수많은 범죄자 중 하나의 보복이라는 뻔하고도 어이없는 동기가 세상에 밝혀지자, 유능한 검사와 국민 뮤지션을 동시에 잃은 대중은 격분했다. 그를 살해한 범인의 사형 청원 서명운동 따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가류 쿄야의 장례식장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조문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게 사방에서 보내온 흰 국화꽃으로 가득 찼다. 생화와 조화가 한데 섞여 질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시할 만큼도 못 되는 미묘한 꽃향기를 풍기는 공간의 한복판에서, 상주 한 명만큼은 바깥이 부산스럽건 말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로 유족들의 휴식을 위해 준비된 작은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를 굳이 골방 밖으로 끄집어내려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억울한 이에게 애꿎은 누명을 씌운 증거 날조범에 그걸 묻기 위해서 셋이나 죽이려 든 극악무도한 살인마 형이라면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편이 더 나을 테지. 키리히토는 명하니 벽에 기대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벽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관리되었지만 조금은 낡은 티가 나는 옅은 갈색의 민무늬 벽지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자,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걸린다. 갈기갈기 찢겨서, 이제는 원래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게 된 무언가의 잔해들이 느껴진다.

조금 전 가류 키리히토의 손에 의해 지금의 가류 키리히토처럼 되어버린, 그것들의 존재감이 참을 수 없이 선명하다.

그렇기에 차마 완전히 구겨 쓰레기통에 내던지지는 못하고, 그 두 존재는 계속해서 한 평 반짜리 좁은 방 안에 애매하게 공존한다. 키리히토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만을 향한다. 구태여 찢긴 종이조각들의 무덤에서 손을 완전히 떼어내지는 않는다.

————◆◇◆◇◆————

가류 키리히토의 형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대강 절반 정도는 넘어선 듯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형이 얼마쯤 남았는지를 새삼 가늠하는 짓을 완전히 그만둔 지도 이미 오래였으니. 그가 실제로 오래간만에 바깥 공기를 쓸 수 있게 된 사유는 다름 아닌 친동생 교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말 한마디 안 했건만, 소식을 들은 교도소장이 멋대로

특별귀휴를 안겨주어, 이렇게 된 거 아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한 얼굴이라도 잠깐 볼까 싶어 키리히토는 고민 끝에 거부보다는 순응을 택했다.

그는 감옥에서 모범수 축에 속했고, 도주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었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상 교도소에서 파견된 직원이 장례식장에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인물이 굳이 키리히토를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몇 년 만에 부모와 얼굴을 마주한 키리히토는 그들 사이에 잠깐 자리한 어색하고도 불편한 침묵을 깨고 예의상의 인사 한마디를 건넸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대화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봉골레는 다행히도 아주 건강했다. 야속한 시간의 흐름을 타고, 그 작고 사랑스럽던 어린 리트리버가 어느새 노견 축에 들게 되었기에 옥중에서도 내심 걱정이 많았던 그는 그간의 공백 따위는 알지도 못한다는 듯이 저를 반기며 품속에 뛰어들어 꼬리를 흔드는 봉골레를 쓰다듬으며 저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날 재판의 끝에 미친 듯이 광소한 순간 이후, 옥중에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다. 웃을 일도 없었고, 웃고 싶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이 무참히 깎이고 무너져 내린 폐허의 한가운데 서서 알량한 미소 따위를 짓고 싶겠는가.

“제 하나뿐인 친동생이 죽었는데, 그 대신 신경 쓰는 게 고작 개새끼 한 마리라니.”

한탄일지 편잔일지 모를 혼잣말 같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귓가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자, 입가에 선명히 떠올랐던 미소가 굳어간다. 저벅저벅, 등을 돌려 제게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 가류 키리히토는 감히 미동조차 하지 못한다. 어떠한 존재는 다른 존재에게 있어 영원히 절대적이다. 주로 개에게 주인이 그렇고, 자식에게 부모가 그렇다. 문제를 틀렸다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에 입술을 악물 나이는 진작에 지났건만, 키리히토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도로 열 살짜리 어린애로 돌아간

듯한 무력한 감각에 빠져들었다. 그의 부모는 이처럼 항상 그보다 죄야를 더 예뻐했다. 적어도 키리히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그런 동생이 죽었다고 한들 제가 슬프기나 하겠냐는 날 선 말들은 도저히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의 목구멍 뒤에서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가류 죄야에게는 가류 키리히토와 달리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슬퍼하고 기억해 줄 만한 이들이 사방에 차고 넘쳤다. 교도소에서 임시로 나온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그마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온 나라가 열성적으로 제 동생의 죽음을 슬퍼해 주고 있었다. 실은, 저런 동생 따위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수도 없이 씹어 삼켜왔다. 네가, 너를, 너만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야 훨씬..... 그래 놓고선 막상 정말로 없어지니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사실이 키리히토를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 애는 생전에 철저하게 가식으로 꾸며낸 완벽한 형의 탈을 쓴 자신을 퍽 좋아했었다. 형아, 형아, 하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니던 조그만 꼬맹이 시절에는 약간이나마 귀엽다고 느낀 적도 있었던 것도 같다. 여덟 살이라는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 제아무리 세기의 천재라도, 다섯 살짜리가 제법 똑똑하고 성실한 축에 드는 열세 살짜리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키리히토가 잠깐이나마 맛봤던 우월감의 근원 또한 그것이었다. 저보다 훨씬 어린 동생을 더 뛰어난 형으로서 쟁겨주고 지켜준다는 감각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 애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격이 쑥쑥 커져 어느새 눈높이도 저와 비슷해지고, 명문 법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기어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고작 열일곱 살에 검사가 되어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 소문난 천재에 유망주인 가류 죄야 때문에, 가류 키리히토는 일류 변호사로 불리고 은테 안경의 귀공자라는 별명을 얻건 말건 간에 항상 남들에게 동생보다는 못한 형이었다. 그 잘난 동생이라는 존재는 키리히토에게 있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려 결국 그의 전체를 집어삼켜 버리고야 만 거대한 열등감의 씨앗이었다.

아무튼, 키리히토는 여전히 운 나쁘게 요절해 버린 제 동생을 진지하게 추모할 생각 따위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갑자기 표정이 굳은 채로 쓰다듬어주던 손을 멈춘, 그리웠던 주인을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며 바라보는 봉골레의 의아하고 순수한 눈빛이 그에게는 수백 배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아마 그럴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이미 잃어버리고야 만 것의 중요성을 뒤늦게 실감하는 것만큼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은 이 세상에 더 존재하지 않으므로.

—◆◇◆◇◆—

“..... 선생님.”

“..... 오랜만에 얼굴 보는군요, 오도로키 군.”

장례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누구보다도 일찍 식장에 찾아온 오도로키 호스케와 마주친 건 그다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는 어느새 꽤 오랜 시간 동안 죽은 동생과 퍽 가까운 지인 관계로 지냈으니 부고장 또한 가장 이른 순번으로 받았겠지, 싶어 키리히토는 담담한 낯으로 오도로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이상하게도, 언제부턴가 저를 ‘배신’한 이들을 향한 원한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제가 직접 키운 제자와 평생을 곁에서 보아 온 남동생이 합심하여 자신을 무너뜨린 사실이 자명함에도, 지금의 키리히토에게는 그런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주아주 먼 옛날, 한 오십 년은 족히 지난 과거의 일인 것만 같아. 그러니, 지금 제 눈앞에 선 괘씸한 제자에게 괜히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쯤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새 꽤 변호사 태가 나게 되었군요. 하긴, 오도로키 군의 명성은 철창 안의 저에게까지 종종 전해 들려왔습니다만……”

예의상 이어지는 형식적인 말들. 아주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히 진심을 담아 한 말들도 아니었다. 어쩐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죽을 것만 같다는 아무리 마음이 숨기려 해도 여실히 느껴지고야 마는 제자님은 그 빙껍데기 같은 말들에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 주다가, 어느 순간 결심이라도 한 듯이 침을 끌꺽, 소리 내 삼키고선 옛 스승을 부리부리한 눈으로 똑바로 올려다보며 대뜸 본론을 꺼낸다.

“가류 검사가,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만의 만약을 대비해 들어 두는 보험이라면서……”

“……”

“저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 아, 물론 그 후엔 추모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

키리히토는 그 말에 마땅한 대답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고개조차 한 번 제대로 끄덕이지 못하고, 망연히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에 발성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몇 년 만에 들은 제자의 음성은 발음이 또렷하고 목소리 톤이 과하게 높지도, 낮지도 않게 묵직하고 존재감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그로 하여금 차마 거부하고 귀를 틀어막지 못하게 하였다. 오도로키가 자신은 이만 조문을 다녀오겠다며 정중히 인사하고 떠나간 이후에도, 키리히토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굳어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가 제게 남기고 간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만 같았기에 그대로 주먹을 꾹 쥐어 보았지만, 왜인지 그의 손등에 악마는 순순히 나타나 주지 않았다.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본가에 다녀오고 싶다는 키리히토의 요청에, 그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은 자신이 동행할 시 가능하다며 어렵잖게 허가를 내 주었다. 운전석과 탑승석 사이 강화유리 칸막이가 쳐진 특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도 함께 붙었지만, 그건 처음 교도소에서 나와 이동할 때에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별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다. 애초에 지금의 키리히토에게는 운전 중인 직원을 습격해 차량을 탈취하고 도주하는 것 따위의 사악한 계획 또한 없었으므로. 그날 자신의 모든 음모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전말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의욕이 들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일들을 꾸민 주체가 제가 아닌 동생이었다면 결과가 이것과 조금은 달랐을까? 그다지 깊게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었으므로 키리히토는 헤드레스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도착했습니다, 가류 씨.”

아, 그새 깜빡 잠에 들었던 모양이다. 장례식장에서 본가까지는 거리가 꽤 있음에도 잠든 사이 도착해버렸다는 걸 보면, 근처에 타인이 있는 상태로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평소 습관이 무색하게도 제법 오래 자버렸나 보지. 아, 네, 죄송합니다. 운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키리히토는 습관처럼 정중한 대답을 내뱉는다. 이어 직원이 뒷자석의 잠겨 있던 문을 열어주고, 그는 그 순간 아직 조금은 명한 정신을 명료하게 깨워 줄 상쾌한 바람을 맞는다.

글쎄? 바람에게 물어봐. 그런 말버릇을 지녔던 사내를 잠깐이나마 머릿속에 담는다. 곧 고개를 좌우로 가볍게 탈탈 털듯 흔들어 그러한 상념을 떨쳐낸다. 그 녀석은 분명, ‘우리만 아는 장소’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에 관련해 짐작 가는 곳은 이 집 안에 있었다. 면회건 편지건 죄다 꿋꿋이 거부해 왔던 평소의 그였다면 그런 말을 들어 봤자 무시하고 넘겨버렸을 테지만..... 어째선지, 이것만큼은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무언가를 깔끔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엉망진창으로 엮여 들어 어디서부터 어디가 매듭인지, 엮여든 줄이 총 몇 개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그들 사이의 꼬인 감정을. 사실, 각자 서로에게 아주 일방적으로 품었던 감정을.

—◆◇◆◇◆—

가류 쿄야가 가류 키리히토에게 남긴 것들은 예상한 대로 본가 다락방 바닥의 가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쪽에서 여섯 번째 판자를 들어내면 나오는 작은 공간에 들어 있었다. 쿄야가 다섯 살, 키리히토가 열세 살일 때 다락방에서 키리히토가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백지 퍼즐을 찾으려 형제가 합심하여 방을 온통 뒤집어놓았던 적이 있다. 이것은 그러다 이 부분의 판자를 밟았을 때 유독 빠걱거리는 흔들림이 느껴져 들어내 본 후 발견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둘 다 한창 ‘아지트’니 ‘비밀 공간’이니 하는 것에 흥미를 지녔을 나이였기에, 그 공간은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고 여태까지 형제만의 비밀로 남았다.

그 안에 든 먼지 덮인 작은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어보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형제가 어렸을 적 둘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어쩐지 익숙한 빛깔의 매끄럽고 작은 실타래, 편지로 추정되는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었다. 고작, 이런 것이나 남겨주려고 거창하게 의미심장한 전언씩이나 남긴 건가 싶어 허탈감에 한숨이 나왔다. 그는 일단은 그 상자의 먼지를 대강 털어낸 후, 그것을 손에 쥐고 다락방을 떠나 아래쪽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에게로 발걸음했다. 제 동생은, 실은 세상이 알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 훨씬 시시하고 하찮은 녀석이 틀림없었다. 그 허무하고도 갑작스러운 최후처럼.

키리히토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다시 잠들지 않았기에, 여정은 아주 길고도 지루했다. 그 길 위에 버려진 시간은 손안에 든 편지라도 읽어볼까 싶은 고민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정도로 끔찍하게 무료하고도 무의미했다. 하지만 키리히토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풍경만이 이어지는 차창 바깥쪽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자그마한 상자를 애써 외면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그것이 무릎에 닿는 감촉이, 존재감이, 어쩔 수 없이 기분 나빴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장례식장에는 그사이 동생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이번 망자는 영정 사진을 따로 찍어둘 만한 나이는 아무래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사진을 쓸지 급히 논의하느라 영정 제작이 다소 늦어진 모양이었다. 결론은 최근에 찍은 화보 중 가장 얌전한 구도와 복장의 프로필 샷..... 정도로 난 모양이지만. 키리히토는 언제나처럼 능청스럽게 웃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오래간만에 마주하고, 거기서 무언가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영정사진 속 동생의 머리카락은 기억하던 것에 비해 약간 짧았다. 물론 헤어스타일을 기분이나 새로 잡은 컨셉에 따라 이리저리 바꾼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물임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키리히토의 손에는 쿄야가 남긴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기에. 그제야 아까 전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서 느낀 묘한 위화감의 정체를 깨닫는다.

키리히토는 도망치듯 장례식장 내의 작은 골방으로 뛰어 들어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쥐어뜯을 듯 집어 들고선 쓰레기통 안으로 집어 던졌다. 남이 보기엔 그것이 가류 키리히토의 것인지, 가류 쿄야의 것인지조차 구분 가지 않을 어두운 금빛의 머리카락 뭉치가 구겨진 휴지와 뜯긴 비닐봉지들 사이에 처박힌다. 키리히토는 이어 상자 안에 든 편지도 꺼내 양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선, 사진까지도 똑같이 찢어버리려 손을 뻗었다가 중간에 지친 듯 그만두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 받는 쪽에서 응답해 줄 생각도, 원한 적도 없는 애정 따위는 그저 폭력일 뿐이다. 그는 제 동생이 무슨 심정으로 저와 똑같이 기르던 머리카락을 잘라 제게 주려 했는지, 딱 보기에도 질이 좋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 따위를 남겼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저를 이 비참한 나락 속에 끄집어 넣은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짹사랑이라도 하는 수줍은 10대 소년처럼 같잖은 위선을 떠는지. 차라리 눈앞에 살아라도 있었으면 당장 멱살 잡고 그에게 최대한 상처를 줄 만한 저열하고 지독한 말들을 쏟아붓기라도 하겠는데, 죽은 사람을 아무리 욕해본들 그에게까진 결코 닿지 않을 터였다. 머리가 좀 크고 난 후론 예쁜 구석 하나 없었던 동생은 비겁하게도, 일방적으로 고백을 퍼부은 후 대답조차 듣지 않고 제게서 도망쳤다.

키리히토는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굳이 더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

가류 쿄야의 장례식이 끝나고, 관이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보자 어느덧 차가운 독방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부모님은 그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도 고려해 본 모양이지만, 그러기에는 고인이 생전에 화장만큼은 죽어도 싫다는 말을 몇 번 했었다고 한다. 무덤을 만드는 날 하필이면 추적추적 비가 내리자, 정말이지 불이 지지리도 싫었던 모양이라며 검은 우산을 들고 무덤 주위에 선 이들 중 하나가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키리히토의 기억이 맞다면, 그는 아마 가류 웨이브의 전 멤버이자 쿄야의 친구 중 하나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전에 콘서트 중 기타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던가..... 쿄야의 면회를 거절하지 않았던 시절, 그가 교도소에 찾아와 잔뜩 늘어놓은 근황들 사이에서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었다.

키리히토가 교도소로 돌아가며 함께 가져간 것은 그 작은 상자 안에 들어 있던 모든 물건이었다. 한때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머리카락 한 줌을 도로 꺼내왔던 게,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엉망으로 널브러졌던 편지의 잔해들을 남김없이 그려모아 상자 안에 담았던 게 무슨 이유에 기반한 행동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괜한 후회와 미련 따위에 젖어 이후로 빌어먹을 동생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싶지는 않았다. 반입 물품 검사를 하던 교도소 직원에게는 적당히 반려견의 털이라고 둘러댔다. 아마 죽은 동생의 이미지 유지에도 이편이 훨씬 나을 터였다.

키리히토는 그날부터 하루에 한 조각씩, 딱 한 조각씩만 찢긴 편지 조각을 올바른 위치에 꿰맞춘 후 원래의 온전한 형태가 되도록 이어 붙였다. 언젠가 두 형제가 함께 천 피스 짜리 백지 퍼즐을 맞췄던 때처럼, 그 넓고 막연한 빈자리를 차츰차츰 채워나간다. 대단한 동기에 기반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좀디좁은 독방 생활이 너무나도 무료했고, 당장 콕 죽어버리지 않고 버티려면 이렇게라도 숨 붙이고 다음 날을 살아갈 목표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았기에. 애초에, 그전에도 키리히토가 벌였던 일 중 대단한 동기에 기반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보기보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에 휘둘려 움직이는 부류의 인간이었으니.

찢긴 편지가 조금씩 원래의 형태를 되찾아가자, 자연히 편지를 빼곡히 채운 글씨가 키리히토의 눈에 들어왔다. 조금 재수 없을 정도로 가지런히 적힌 글. 노련하고도 아름다운 필체. 최대한 그 내용을 인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뭐든 마음먹으면 못 하는 게 없던 동생이 공들여 쓴 글씨들은 읽기 싫어도 시야에 스치는 순간, 그 의미들이 저절로 머릿속에 흘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글씨 위로 시선이 미끄러지면 필연적으로 과거 또한 재생되었다. 언젠가의 일, 동생의 글씨 연습을 도와주었던 한철 과거. 아주 어린 시절의 쿄야는 이해력이 남다르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지만, 그만큼이나 변덕스럽게 흥미를 좇아다녔다.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면 산만한 기질이 있었다. 그렇기에 당시 중고등학생 정도였던 키리히토는 종종 어린 동생을 책상 앞에 앉히고 차분히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쳤다. 한때는 구름이나 벌레 따위를 맑아있던 글씨체가 멋을 담아 유려하게 쓰인 글씨가 될 때까지. 가류 쿄야는 그때 어떤 표정이었던가.

키리히토는 어느덧 글씨를 아주 잘 쓰게 된 동생이, 타자기로 쓴 듯 멋들어진 필체로 제게 적어 보이던 이름까지 떠올린다. 가류 키리히토. 어쩌면 그 애는 그 이름을 멋지게 적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사리 같은 손을 쉬지 않고 놀려 글씨 연습을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키리히토는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그러한 가설을 모른 척 외면한다. 이제 와서 가정 따위는 의미가 없다.

—◆◇◆◇◆—

그렇게 몇 달인가의 시간이 흐른 후, 결국 가류 쿄야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는 온전한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그 사이사이에 비어 보이는 공간은 딱히 없는 것을 보면, 다행히도 처음에 마구 찢어 한참 내팽개쳐두었던 것 치고는 유실된 부분이 특별히 없는 듯했다. 사실 편지를 도로 맞춰 이어 붙이는 작업을 거치면서, 그 내용은 거의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키리히토는 간만에 오랫동안 공들인 작업의 완성을 기념할 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대로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결코 쿄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편지의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바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녕, 형. 형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마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실은, 예전부터 크고 작은 생명의 위협은 종종 겪어 왔어. 날이 갈수록 범죄는 늘고, 세상은 더욱

흉흉해지고, 와중에 내가 하는 일이란 게 그럴잖아. 난 내가 직접 기소한 범죄자들의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도 슬슬 가늠이 안 되는걸.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노래 가사를 직접 쓰는 일류 뮤지션이 적은 도입부치고는 퍽 식상하고도 뻔한 멘트였다. 키리히토는 아무 감흥 없는 눈으로 제 동생이 자신의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상황을 담담하게 고하는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구태여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 친형과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파트너마저도 가차 없이 고발해 감옥에 처넣는 이가 아무 연고 없는 타인에게는 얼마나 매정할지, 그리하여 얼마만큼의 원한을 샀을지는 안 봐도 뻔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날 형을 고발하고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후회하고 있지 않아. 아주 약간의 후회조차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난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테니까. 형은 이런 나를 분명 원망하겠지. 어쩌면 형제의 정보다 알량한 정의 따위를 더 우선시하는 위선자라고 비웃고 싶을지도 몰라. 나를 미워하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말이야.....」

더 이상 피곤하게 동생이나 제자를 증오하는 마음 따위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던 키리히토는 이 부분 또한 마냥 우습다고만 생각했다.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같이 정확히 이런 생각들을 하며 분노와 원망을 간신히 삼켰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러다 못해 삶의 의지와 의욕마저 거의 꺼져가는 것에 가까운 상태를 맞고 있었으니. 이런 공허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만 계속해서 적혀 있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아주 허탈해질 테니, 그는 기왕이면 동생이 그 뒤에 이어질 문장들에서는 더욱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기를 바랐다.

「형이, 앞으로도 평생 모든 것을 의심해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어.」

이윽고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가소로움에 코웃음을 쳤다. 여자에게 인기나 끌려고 밴드를 만드는, 철없고 곁벗만 든 애송이 주제에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가 대체 자신의 어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설프게 이해하는 척해준다고 해서, 정말로 그 지옥 속에 발 담그고 살아온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을 줄 아는 건지.

「그 어둠 속에서 검사석에 서야 했던 단 몇 분만으로도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는데, 형은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거잖아. 형은 역시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런 대단한 형이기에, 그만큼 더 올바른 길로 돌아와 주기를 바랐어.」

그러나,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조금도 웃지 못했다. 제게 그런 말-가류 키리히토가, 가류 쿄야보다 뛰어나다는-을 해주는 이는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직 가류 쿄야만이 가류 키리히토를 저보다 대단한 사람이라 해 주었다. 오롯이 동경하고 신뢰하는 눈으로 봐주었다. 다른 이도 아닌, 그 가류 쿄야 본인이. 당사자가. 심지어 자신의 밑바닥이 추하게 드러나 붕괴된 채로 몸부림치는 꼴을 눈앞에서 지켜봤으면서도, 그리 흔들림 없이 말해준다.

「나는 언제까지고 빛나는 형을 동경하는 동생으로 남아 있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키리히토는 잠시나마 생각을 멈추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형이 끝내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차마, 편지의 말미에 적힌 그 마지막 문장을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그 안에 사랑한다는 말 따위는 한 마디도 쓰여 있지 않음에도, 그 모든 문장이 그러한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생전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절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키리히토는 그만 무어라 할 말을 잃고야 말았다. 결국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 것처럼, 죽은 쿄야가 산 키리히토를 이기고야 말았다. 그 얄미운 동생은 끝의 끝까지, 제게 단 한 번을 죄 주지를 않았다.

“.....쿄야.”

아주 오랜만에 입에 담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목구멍 중간에 턱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쉽사리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뱉어내는 데 성공했다. 평생 질릴 만큼 부르고 또 불렀던 익숙한 이름이건만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지는 울림이었다. 꼭, 그전에 불렀을 때와는 그 이름자를 부르는 목소리에 담긴 마음이 많이 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가끔 키리히토는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존재가 실은 하나가 아닌 둘이었노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중 하나를 영영 잊어버리고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고. 동생을 미워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오직 미워하지만은 않았었다고.

이 말들을, 기왕이면 좀 더 일찍 들어줄 걸 그랬다고.